

오태준

xownswns@naver.com
01053309136



소개

“화면을 중심에 두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오태준입니다.”

저는 사용자의 흐름과 팀의 흐름을 동시에 설계하는 특유의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협업과 설득의 힘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팀을 하나로 묶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집단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가 “집단의 IQ”이다라는 말을 명심하며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단순히 잘 동작하는 코드를 짜는 것을 넘어, 팀원에게는 유지보수가 쉬운 구조, 사용자에게는 맥락이 자연스러운 UI를 제공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진짜 ‘좋은 서비스’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화면을 넘어 흐름을 설계하는 개발자가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점

- 몸이 몇 개냐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열정적인 노력형 개발자 입니다.
2024년, 군 제대 이후 처음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하였고, 늦게 시작한만큼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React, Vue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실전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면서 기술 스택을 넓혔고, UX 기반의 개발 역량을 함께 길러왔습니다.
개발 역량 뿐 아니라, 어홍콘, DB 드림리더 활동 등 다른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업하는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모른다 해서 아는체 하지 않고, 모른다 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뒤늦게 개발을 시작하며 부족한 개발 실력을 가졌지만, 늘 배우는 자세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13기 프론트엔드 트랙장 및 홍보팀장을 맡아 트랙원들의 교육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기획력과 협업 능력을 쌓아왔습니다.
-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기술 블로그로 정리하며, “공유”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낮에는 개발을 하고, 밤에는 기술 블로그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이를 나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더 나은 코드를 고민하는 개발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를 위해 시간 엄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D-Order 프로젝트에서 약 10일 가량의 짧은 기간동안 서비스를 제작하여 배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으나, 보다 높은 리더십이 필요로 하였고 API 명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작업을 하며 발생하는 오류를 현저히 줄여나갔습니다.

스킬

JavaScript (TypeScript) React Next.js

Github Github actions Figma

Notion Slack Trello

학력

동국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링크

<https://velog.io/@taejun0/posts> 블로그
<https://github.com/taejun0> github
<https://www.taejun0-portfolio.site/> 포트폴리오 사이트